

天의 研究와 修道의 理念論

安 鍾 沅 *

目 次

緒 論

本 論

I. 天에 관한 研究

1. 韓民族 原始 敬天思想

2. 唐虞時代의 天思想

3. 夏殷周 三代의 天思想

4. 孔子의 天思想

5. 孟子의 天思想

6. 荀子의 天思想

7. 墨子의 天思想

8. 老子의 天思想

9. 莊子의 天思想

II. 修道論

1. 道の 研究

2. 修道의 길

結 論

緒 論

敬天思想을 研究하기 위해서는 먼저 天이란 무엇인가부터 糾明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머리를 들어 青天을 바라볼 때 無窮하듯 天의 概念·뜻의 世界도 무궁하여 헤아리기가 어렵다.

우리가 바라보는 青天은 宇宙空間으로서 可視的 天이기에 뚜렷하게 볼 수 있으나 보는 것 이상 알 수 없고, 저기에 무슨 뜻이 있는가 캐물어 보아도 푸른 하늘을 떠가는 구름이 있다가 사라지고 없다가 떠오르는 點想들이어서 뿌리있는 생각은 없다.

물론 科學者 특히 天文學者나 宇宙科學者가 관찰하는 天은 未知의 世界를 探究하여 宇宙의 모습을 한걸음 두걸음 探查함으로써 物理的 宇宙를 알 수 있으나 거기서 尊敬하는 하늘은 찾을 길이 없다.

*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그러므로 研究하려는 天은 可視的 天이 아니라 不可視的이므로 관찰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想念으로 깨닫는 天이다.

여기에 不可視的 뜻의 하늘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存在를 인정하나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存在를 不信할 수도 있어 精神的 天論은 漠漠하다 하겠고 有天論者들 간에도 各者 깨달은 만큼 自說이 紛紛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天에 관한 한 篇의 論文 한 卷의 著書가 作成되기 위해서도 天의 對象論이 분명해야 할 것이다.

天을 아무리 尊敬하고 싶어도 漠漠한 하늘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입장에서는 尊敬心이 우러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物理的 萬象의 存在는 時間性和 空間性的 조건을 피할 수 없이 제약되어 實在가 分明하나 精神的 天은 時·空條件이 없어 「覺者存」하고 「無覺者無存」하나 문제는 覺者存함이 實在인가 아닌가 밝힘이 어렵다.

前 論文輯 陰陽合德論에서 모든 存在는 볼 수 있는 陽의 面과 볼 수 없는 陰面으로 構成된 一體 二元的 存在요, 陽面은 物質, 陰面은 精神이라 하였으나, 天도 可視的 宇宙의 天은 陽天, 不可視的 宇宙精神·天意는 陰天이라 규정한다면 간단하고 설명하기도 쉬운 일이나 天文學이나 宇宙科學에서 다루는 하늘과 「敬天」하는 하늘과 對象이 一致하지 않는데 陰陽論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慎重하게 연구할 것이요 보이는 하늘과 안 보이는 하느님이 一體 兩面이라 한다면 不可思議의 迷宮에 점점 들어가기 마련이다. 그 실례는 周邊에서 자주 듣고 보는 바 農事철에 비가 와야 할 때 지나치게 가물고 필요 없을 때 큰 비가 오면 이것이 하느님이 계신지 않계신지, 계시다면 하느님을 원망 안할 수 없게 된다. 無力한 農民들은 큰 罪를 지은 바 없이 모두 農民들이 得罪한 응분의 罰을 받는다고 罪없는 罪를 꾸며서 自責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罪를 크게 지면서 致富하여 榮華를 누리는 者들은 良心의 苛責 없이 天을 찾지도 않고 있다고 생각지를 않는다.

여기 「覺者存, 無覺者無存」하는 天은 「信者存 無信者無存」하는 宗教의 對象이라 아니할 수 없다.

物理的 天은 萬人 누구하나 부인하지 않지만 最高의 主宰者로서의 「하느

「(느)님」은 宗教的 天이나 天을 믿는 사람은 모두 宗教人이라 한다면 또 문제가 있다. 「당신은 어떤 종교를 믿는가?」 하면 一定한 既成宗教를 믿고 있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是認한다해서 宗教人이라 自認한다기 보다 人生 自體가 不完全한 運命的 存在로써 完全者에게 의탁하려는 宗教本能이 순박하게 표현된 告白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이렇다면 「하느님」의 存在를 是認하는 것이 全人類의 보편타당한 告白이라 하고,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신지 명확하게 제시하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人種마다 가지고 있는 宗教의 최고 對象의 呼稱이나 概念은 一定치 않을 수 있으나 意中 內容은 類似할 것이다.

反對로 철저하게 「天」도 「神」도 否定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科學者여서 確認된 것만 存在를 인정하고 불확실한 것은 부인한다면, 그 자체가 큰 모순을 犯하고 있다는 사실, 즉 모르고 있다는 無知의 罪에 빠져 있으면서 有知한 채하고 있음이다.

「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고 強辯할 識見이 없어 無答이다 라고 할 때는 正直하나 「없다」고 한다면 無知者의 獨善 獨斷이다.

구태어 소크라테스(Socrates)의 「너 自身을 알라」敎訓, 바로 無識한 너를 自覺해야 알 수 있는 길이 斷긴다는 警告를 재음미할 필요없이 「天 不在」論者의 不敬한 자세는 天과 人界를 멀리 하기에 앞서 人間社會에서 人 對 人의 관계도 두절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모르는 사람은 모를수록 敬虔하게 알고자 노력할 것이요, 없다고 斷定한다면 自己 혼자 無知의 牙城에 監禁되어 끝없이 넓은 眞理의 世界에 入門도 못한다.

그러므로 「天」論은 宗教의 有神 無神을 떠나서 모든 眞理의 學徒라면 敬天思想이 基本精神이 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西洋의 神觀 「God」와 東洋의 「天」은 경솔히 같다고 할 수 없다.

西洋의 多神敎는 제외하고 唯一神은 東洋의 天과 표현방식이 다를 뿐 아니라 「God」의 의미세계는 다르다.

東洋에서도 「天帝」「天神」이라 할 때와 「天」과는 엄격히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論文 머리 緒論에서 자세한 論說할 성질이 아니어서 約하겠으나 天帝나 天神이라 할 때는 「God」와 가깝다 하겠고 「天帝」와 「天」과는 「統治天」과 統治 前의 統治者까지 合한 「統一天」이라 표현하는 것이 接近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天」은 英語로 「God」가 아니라 「Heaven」이 가까울 것이다. 물론 「Heaven」에도 天帝 天神의 뜻이 있으나 從的 뜻이고 「Heaven」은 物理的 天으로서의 「Sky」와 대조적인 靈界로서의 「天界」가 주된 뜻일 것이다.

西洋人들은 「絶對者」神을 찾을 때는 「God」를 찾고 「Heaven」을 찾는 경우는 희박한 것을 보아 그들은 東洋語로 표현하라 한다면 「天」은 극히 드물게 찾고 「天帝」「天神」을 「God」의 同意語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天」을 부르짖거나 사용 자체가 없는 西洋語로 「天」을 연구한다는 것은 緣木求魚와 같은 格이라 하겠다.

우리 韓民族의 경우 「天」이라는 漢字가 도입되기 前 몇 千年 來 우리말 「하느님」「하늘님」은 中國語 「天」과 같은 意味의 概念으로 사용하여 왔을 것이다.

「天」이나 「하느님」은 物體가 아니므로 어느만큼 크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宇宙와 同格 尊位로 알 수 있으면서 神(God)만은 아닌 것임은, 神은 彼岸의 世界 저승에 있는 靈位요, 天은 보이지는 않지만 이승에 現存하는 最大 最高의 宇宙의 聖靈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天」「하느님」은 畧者가 眞實無妄할 때 天과 相通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점이 西洋의 神과 다른 天의 存在相이라 하겠다.

東洋의 「天」은 天界에 있고 人生은 現實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往來가 自由롭다고 보며 저승인 神明界와 다른 점ियो 天과 人이 相通하는 것을 天人合一이라 하고 修道의 極致가 곧 天人合一에 있다고 한다.

修道는 宗教的 修鍊이기 보다 道德的 修養편이다.

道德的 修道는 人間이면 누구 하나 안갈수 있는 道가 아니라 必히 가야 할 道이므로 선택의 自由가 있는 宗教的 修鍊과 구별된다.

宗團 大巡眞理會의 修道는 道德 相生倫理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信仰

을 바탕으로 한 他 宗教와 核心을 달리한다.

本 論

I. 天에 관한 研究

1. 韓民族 原始 敬天思想

어느 民族의 思想이던간에 그 초기에 있어서는 人間과 對象關係에 있는 森羅萬象 일체에 精靈이 깃들여 있다고 보는 애니미즘(Animism)형태로 시작되었다. 그 중에서도 天의 위력과 地의 불가사의한 造化는 약자로서의 人間에게 敬意의 대상이었다. 특히 우리 國土와 같은 地理條件 즉 農耕과 漁業 이외에 별다른 특혜조건이 허락하지 못하는 自然環境하에서는 天地神明의 威力이 미약한 人生의 生死를 주재하는 絕對力으로 군림하는 것으로 알았다.

韓半島라는 地理條件은 北緯 34도에서 42도 이하에 위치하여 기후가 溫和하여 春夏秋冬의 四季節이 뚜렷하고, 그 지세는 70% 내외의 산악이 자리하여 30% 내외의 평야지대 사이에는 江이 흐르고 있다. 이러한 지세와 기후조건하에서 택해야 하는 生業은 耕作農業이 가장 적합하다. 耕作農業이란 어떤 職種일까?

기후조건이 절대지배하에 있는 직업이므로 人力으로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도 결과는 天運에 맡길 도리밖에 없다. 물이 필요할 때 비가 와야하고, 물이 필요없을 때는 가물어 주어야 하며, 기온도 더워야 할 때 더워야 하는데 寒冷이 엄습하면 廢農이 된다. 현대와 같이 全天候 農業時代를 지향하는 때라 하여도 대줄기같이 쏟아지는 폭우를 막을 도리가 없고 몇 달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한발을 人力으로 해결을 못하며, 밀려오는 寒波 또한 속수무책이다.

항차 自然科學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古代 農耕社會에서의 하늘의 위력은 萬民의 生死與奪權을 장악한 절대자였다.

그래서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하늘을 극진히 우러러 모시는 敬天思想이 자

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그러면 이 민족의 궁극적 숭배의 대상인 「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살피기로 한다.

天은 반드시 韓民族에게만 信仰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하늘 아래 모든 人類의 공통된 敬畏의 대상이지만 그 의미내용은 民族에 따라 다를 수 없으며 종교도 敎派에 따라 異質적인 天인바, 각기 궁극적 理念이라는 점에서 각 民族의 목적의지를 살필 수 있는 단서가 됨을 부인할 수 없다.

韓民族의 경우 天上界를 그리워하고 그 곳을 여러모로 상상하기 보다는 오히려 天上은 저승(死後)의 세계로 이승(現實)에 애착된 우리에게서 모든 人生의 사랑의 유대가 끝나는 終着点으로 보았다. 자신의 前生을 누구도 알 수 없듯, 그 來世 또한 그렇게 未知의 세계가 天上界인 것이다. 그 未知의 세계를 이러쿵 저러쿵 멋대로 상상한다는 것은 前生을 모른다는 그 無知의 資格으로는 欺瞞된 幻想이라 보았기에, 아예 不問에 부쳤던 우리 民族이다. 이 얼마나 순박하고 정직한 民族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때고 人生의 極限点에 부딪칠 때면 有·無神論者를 막론하고,

「하느님이시여! 저를 구해주소서!」

마음 속깊이 애원한다.

또 오늘날까지 韓國의 전통적 가정에서는 자기 가정에 중대사를 당면하면 主婦들은 으레히 목욕하고 子正 심야에 장독대에 淸水를 떠놓고

「하느님이시여! 天地神明님이시여! 이 티없는 衆生의 간곡한 소원을 성취케 하옵소서!…」

손이 닳도록 빌면서 지성어린 拜禮를 수없이 올리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極貧者나 가정에서 반대하는 男女가 결혼할 때에는 淸水를 떠놓고 두 사람의 사랑을 하늘에 맹서하고 앞날의 행복을 기원하는 풍습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筆者는 「하늘」과 「淸水」 그리고 「韓國人의 마음」은 一脈相通하는 원리

가 흐른다고 생각한다.

하늘은 물론 造物主的・主宰者的 絶對唯一者이기에 「하나(一)님」 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 韓民族에게는 「眞心の 極致의 世界」로서의 하늘이 더욱 친숙하다. 人生으로서의 眞心を 극진히 하였을 때 곧 天意와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眞心の 保證處이며 成事가 없을 때는 하늘을 원망하기보다 自身の 정성이 부족한 탓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心身 도야에 至誠을 쏟았던 民族이다. 이 얼마나 가혹하고 지순한 人間心性인가!

淸水와 같이 더 없이 맑고 고결한 韓國人의 마음씨, 이것이 본바탕이 되어 韓國의 歷史는 형성되어 왔다. 그래서 韓半島라는 조그만 지역에서 半萬年을 이어오는 동안 영롱한 文化遺産으로 빛내며 國難을 극복하여 왔다.

어떻게 고귀하고 결백한 심성으로 國難克服의 論理가 성립되었을까?

이 아름다운 江山에서 罪없이 오손도손 살아가는 우리 民族을 침략하려는 者, 天意에 맹세코 격퇴하려는 철통 같은 의지가 다져지고, 결백한 마음 곧 眞實無雜한 마음이니, 「참 마음」은 「마음의 全體」인 바 일단 有事時는 全心全力으로 民族이 뭉쳤기 때문에 半萬年을 의연히 살아오는 것이다.

2. 唐虞時代의 天思想

1) 堯典의 天思想

中國民族은 중앙아시아로부터 東方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곤륜산을 우회하여 新疆省 甘肅省 등을 통과할 때까지는 유목생활을 한 듯하다.

堯舜時代에 이르러 山西省으로 이동하고, 平陽부근에 도읍을 정할 무렵부터는 農耕時代로 들어가게 되어 상당한 文化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지역이 바로 山西省 汾河유역으로부터 黃河유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에 정착하게 된 그들은 자주 洪水의 재난을 당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자연현상에 관하여 예민한 관찰을 하게 되어 名山 大川 風雨 雷電등 자연현상 및 自然物들을 神으로 보고 최고의 神을 天이라고 믿게 된 듯하다. 이와같은 이유로 그들 마음 속에 뿌리 박게 된 天思想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政治 道德 制度 宗教등의 중추적 사상이 되었다.

특히 自然現象 중에서 기후현상은 농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爲政者의 기본정책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하여 가는가에 중점을 두게 됨은 물론이다. 그 실증으로서 堯가 帝位에 있을 때에 重黎의 후손인 羲氏와 和氏에게 天地 四時를 관장하는 세습관직을 임명하고, 그들에게 하늘을 敬畏하고 하늘의 움직임을 잘 조사하며 日·月·星·辰의 운행을 세밀히 관찰하여 曆象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파종, 제초, 추수등의 시기를 자세히 가르치도록 하였다.

그들이 인식한 天은 끝없이 푸르고 푸른 창공이었으나 그 창공의 배후에는 우주만상을 지배하는 天帝가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乃命羲和 欽若昊天 曆象日月星辰 敬授人時.(虞書：堯典)

2) 舜典의 天思想

堯와 舜은 中國 歷史上 가장 모범적 聖君으로 후세 儒家의 추앙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통치시대는 理想的 治世라 하여 敬仰의 표적이 되고 있다.

堯는 재위 70년에 그 帝位를 舜에게 선양함으로써 평화적 정권교체의효시가 되었다.

舜의 부모와 동생은 매우 惡한 사람이었으나 舜은 지극한 효성으로서 그들을 감화시켜 좋은 사람이 되게 하였다. 舜이 일찍이 歷山에서 밭을 갈 때에 자신이 부모의사랑을 받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겨 昊天을 향하여 號泣하였다.(孟子：萬章 上)는 것을 보아 그의 지극한 효성과 敬天의 신념을 미루어 알 수 있다.

堯는 이와같은 舜의 孝行을 가상히 여겨 그의 帝位를 舜에게 선양하였다. 舜은 즉위한 후 日月星辰의 운행을 관찰하는 기계인 璿璣玉衡을 정비하여 天體의 관찰에 힘쓰고 天神에게 제사를 함으로써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天에 대한 敬畏의 뜻을 표시하였다.

肆類于上帝 禋于六宗 望于山川 徧于群神.(虞書：舜典)

3. 夏殷周 三代의 天思想

1) 夏書의 天思想

禹가 세운 나라인 夏는 禹王의 아들 啓가 王位를 계승한 후 430여년 동안 존속하였는데 王이 啓에게 王位를 전수한 것은 中國에 있어 세습군주제의 효시이다. 禹는 당초 舜과 같이 그 王位를 다른 有德者에게 전하려 하였으나 백성들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지 않고 禹의 아들 啓를 謳歌하면서 몰려갔으므로 어쩔 수 없이 王位를 啓에게 전수하였다고 孟子에는 기록되어 있다. 啓는 확실히 賢君이었으나 夏나라 末年에 이르러서는 桀王과 같은 폭군으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하고 殷나라로 바뀌고 말았다.

夏王 啓의 시대에 有扈氏가 王命을 거역하고 횡포를 일삼았으므로 啓王은 그를 토벌하였다. 그것은 有扈氏를 증오하여서가 아니라 行惡者에 대하여 天을 대신하여 제재를 가함으로써 不正을 경고한 조치라 할 수 있다.(夏書: 甘誓)

또 夏王 仲康 때에 羲和氏가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백성의 원한을 샀으므로 仲康은 胤侯를 시켜 羲和氏를 토벌하였다. 羲和氏는 일신의 향락에 빠져 그 직책을 포기하였으므로 仲康은 有衆과 힘을 합하여 天罰을 대행한다고 선언하였다.

今予以爾有衆 奉將天罰 爾衆士 同力王室 尙弼予 欽承天子威命.(夏書: 胤征)

2) 商書의 天思想

夏王朝 말기에 桀王이 횡포를 자행하므로 湯王은 그를 토벌하여 夏王朝를 멸망시켰다. 湯은 舜時代의 名臣인 契의 후예로서 舜이 처음으로 契를 제후로 봉한 곳이 商이므로 夏를 멸망시킨 후에 國號를 商이라 하였다. 그후 盤庚이 즉위하여 國號를 殷이라 개칭하였다. 殷은 640여년 동안 王朝가 존속되었는데 그 사이에 明君과 賢相을 많이 배출하였다. 그런데 唐虞時代에 있어서는 평온한 가운데 禪位가 행하여졌으므로 천인관계에 있어 온화한 양상을 띠었으나 夏殷間에는 왕조 교체시에 혁명적 과정을 거쳤으므로 天을 말하는데 있어 엄숙하고 위압적인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1) 代天討罪說

전제군주시대에 있어 天을 대신하여 폭군을 제거하고 도탄에 빠진 民生을 구제한 것은 湯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와같은 革命이론은 人類歷史에 있어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일치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湯은 桀을 토벌할 때에 자신이 天下를 쟁취할 야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天을 대신하여 無德者를 징계하려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군중들에게 선언하였다. 즉 「夏氏가 罪가 많으므로 天이 그를 멸하라고 내게 명령하였다」 하고 또 「夏氏가 罪가 있으므로 나는 上帝의 명령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것을 시정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민중들은 나를 도와서 夏의 桀王에게 天罰을 주는 일에 힘써달라」고 회소하였다.

王曰 格爾衆庶 悉聽朕言 非合小子 敢行稱亂 有夏多罪 天命殛之 一 夏氏有罪 予畏上帝 不敢不正 一 爾尙輔予一人 致天之罰(商書:湯誓)

(2) 天道福善禍淫說

湯은 桀을 내쫓고 帝位에 오른 후에 「내가 혁명을 한 것은 天命을 받았기 때문이다. 天은 中正의 길을 백성들에게 내렸다. 인간에게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으니 그것은 天이 준 것이다. 그것은 떳떳한 本性으로서 善한 것이며, 나면서부터 善한 일을 행할 경향을 가진 本性이다 그런데 夏王 桀은 德이 없고 폭력으로 백성을 억압하기만 하였다. 그러나 天道는 公平하여 善을 행하면 福을 내리고 惡을 행하면 災를 내린다. 天은 夏에 災를 내려 그 罪를 罰하셨다. 나는 天意에 의하여 桀王을 친 것이요, 결코 私意로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惟上帝 降衷于下民 一 天道福善禍淫 降災于夏 以彰厥罪 一 肆台小子 將天命明威 不敢赦 一 上天孚佑下民 罪人黜伏 一 爾有善 朕不敢蔽 罪當朕躬 弗敢自赦 惟簡在上帝之心.(商書:湯誥)

伊尹은 成湯의 정중한 초빙에 응하여 莘野로부터 출사하여 湯을 도와 桀을 추방하고 혁명에 성공하였다. 湯이 즉위 후에 伊尹은 재상이 되고 湯이 죽은 후에 그의 손자 太甲이 王位를 계승하게 되니 伊尹은 太甲에게 天의 福善禍淫의 道를 말하여 주었다.

즉 「夏의 선조가 德을 힘쓸때는 하늘의 재앙이 없었고 山川 귀신이 安溫하고 조수초목이 번성하였으나, 그 자손이 선조의 德을 따르지 않고 惡行을 하였으므로 皇天은 재앙을 내리고 湯의 孫을 빌어 夏王朝를 타도하였다고 하여 天이 화복을 주는 것은 오직 善惡에 달려 있을 뿐이요, 어떤 특정한 一家를 비호하거나 배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曰 嗚呼 古有夏先后 方懋厥德 罔有天災 山川鬼神 亦莫不寧 鳥獸魚鼈 咸若于其子孫不率 皇天降災 假手于我有命.(商書:伊訓)

(3) 天佑有德說

太甲이 즉위후 伊尹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居喪의 禮를 무시하므로 伊尹은 太甲을 桐宮에 추방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3년후에 太甲이 잘못을 뉘우치자 伊尹은 다시 太甲을 복위시키고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天이 자기를 돕는다고 하여 방심하면 안된다. 임금의 생활이 부정하면 즉시 天의 버림을 받는다. 天의 도움은 오직 德이 있고 없음만을 따른다. 그러므로 德을 기르는데 꾸준히 힘써야 한다. 비록 天下를 임의로 통치할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德을 잃으면 멸망하고 만다. 桀王은 덕을 잃고, 욕심만을 채웠으며, 神을 업신여기고 백성을 확대하였으므로 天이 桀王을 보호하지 않고 帝王될 사람을 구하였는데, 湯만이 天下를 보유할 자로 인정되었다.

伊尹申告于王曰 嗚呼 惟天無親 克敬惟親 懷于有仁 鬼神無常享 享于克誠 天位艱哉一先王惟時 懋敬厥德 克配上帝(商書 太甲下)

伊尹既復厥群 將告歸 乃陳戒于德曰 嗚呼 天難諶 命靡常 常厥德 保厥位 厥德靡常 九有以亡 夏王弗克庸德 慢神虐民 皇天弗保 監于萬方 啓迪有命 (商書 咸有一德)

夏末의 桀王은 학정을 자행하므로 湯은 伊尹의 보좌로 桀王을 내쫓고 왕위에 올랐다. 이것은 先代의 唐虞夏 三朝에 선위로 왕위를 교체하던 평화적 정권교체와는 그 의의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혁명을 통한 정권교체이므로 논의가 없을 수가 없다. 또 이것은 中國에 있어 처음으로 겪는 혁명과정이므로 혁명에 관한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君王이 虐政

을 하면 民心이 이반되고 민심 이반되면 天意가 그 군왕에게서 떠났다는 증거이고, 天의 保佑를 받지 못하는 君王은 君王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므로 내쫓아도 무방하다는 이론이 나왔던 것이다.

孟子는 이와같은 이론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伊尹은 代天討罪를 역설하고 桀이 天意를 무시할 때에 추방을 단행할 뿐 아니라, 太甲이 天意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추방되었다. 그리하여 天은 公平無私하여 어떤 특정의 王朝나 사람을 偏愛하지 않고 善을 실천하는 자만을 保佑한다는 원리를 천명하였다.

그러므로 殷의 天觀을 公義의 天, 賞善懲惡의 天으로 분명히 규정할 수 있다.

3) 周書의 天思想

(1) 代天討罪說

殷末 紂王은 天을 敬畏하지 않고 欲情만을 따르며 奸臣의 말을 듣고 무죄한 자를 처형하며, 忠臣을 박해하고 궁실과 의복을 사치스럽게 하고 누대(樓臺)를 화려하게 꾸미고 酒色에 탐닉하는 등 갖은 악정을 자행하였다. 그래서 紂의 근친인 微子, 比干, 箕子와 같은 賢人들은 天命이 이미 殷에서 떠났음을 알면서도 紂王의 뉘우침을 촉구하는 뜻에서 「天毒降災 荒殷邦」(商書 微子)이라고 하여 목숨을 걸고 간하였다. 그러나 紂王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을 살육 추방하는 등 악행을 계속했다.

당시 文王은 西伯으로서 천하의 三分의 二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신하로서 군주를 토벌할 수 없다하여 혁명을 단행하지 않고 王業을 창건하던 도중 죽었다. 그의 아들 武王에 이르러 아버지의 지위를 계승한지 13년만에 마침내 孟津에서 제후들과 會合하여 紂를 칠 결심을 선언하였다. 이 사실은 周書 泰誓篇에 실려있다.

이때 武王의 주장은 앞서 湯이 桀을 토벌할 때에 주장하던 湯誓와 똑같은 내용이었다.

즉 商王 受(紂)는 많은 악행을 하여 그 죄가 너무 많았으므로 皇天이 진노하여 내게(武王) 紂를 토벌할 것을 명령하였다. 天을 모멸하고 民生을 학

대하는 폭군을 제거하고 天을 敬奉하고 百姓을 안도케 하려는데 혁명의 목적이 있다고 선언하였다.

商罪貫盈 天命誅之 予弗順天 厥罪惟鈞 予小子 夙夜祗懼 受命文考 類于上帝 宜冢土 以爾有衆 底天之罰(周書 泰誓上)

武王이 죽은 후 管叔 蔡叔 및 紂의 아들 武庚등 三監과 淮夷가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周公은 成王의 섭정이 되어 王命을 받들어 이들을 征伐 감행한다고 선언하였다.

予不敢閉于天降威用 (周書 大誥)
予惟小子 不敢替上帝命 (周書 大誥)

이와같은 혁명이론은 高麗 太祖 王建이 등극할 때에도 적용되었다. 泰封王 弓裔는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人民을 혹사하여 궁실을 거창하게 축조하고 妻子까지 살육하는 등 악행을 거듭하므로 백성의 원망이 충천하였다. 그 때 騎將 洪儒 裴玄慶 甲崇謙 卜智謙등이 모의하여 王建을 추대하고 弓裔를 축출하는 혁명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弓裔는 쫓겨 도망하던 도중 斧壤民에게 살해되고 王建은 布政殿에서 즉위하여 國號를 高麗라 하였다가 다시 天授로 고쳤다. 王建은 즉위후 조칙을 내릴때에 弓裔의 죄상을 열거하여 天地不容 神人共怒라 하여 혁명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高麗史 卷一)

이것은 모두 代天討罪의 명분을 표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天人感應說

唐虞時代에도 天人關係를 강조한 바가 있으나 周代에 이르러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을 볼 수 있다. 前王의 죄상을 열거하는 중에서 天에 대한 不順은 곧 백성에 대한 학정으로 표현되고 있다. 天을 不敬하는 것과 백성을 학대하는 것은 동일개념에 속하며 天은 백성을 위하기 때문에 폭군을 제거할 明君을 임명한다고 볼 수 있다. 天은 嚴威의 존재임과 동시에 父母와 같은 친근감을 가질 수 있으며, 天은 높고 먼곳에 있음과 동시에 낮고 가까운 萬人중에 있으므로 萬民의 視聽은 天의 視聽과 직결된다고 보았다.

이와같은 天人關係의 긴밀성을 栗谷이 宣祖에게 올린 「萬言封事」 중에서

도 볼 수 있다.

皇天이 임금에게 대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과 같다. 부모가 자식에게 노하여 그것이 辭色에 나타나면 자식은 비록 과오가 없다 하여도 더욱 자신을 반성하여 부모의 뜻을 받들고 부모의 기분이 유화된 후에야 안심하였다. 이와같이 제왕은 어떤 변고를 당하면 자신을 반성하여 疵政을 고치고 어질고 능력있는 사람을 등용하여 자신의 부족을 보충함으로써 하늘의 진노를 늦추는데 힘써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惟天地 萬物父母 惟人 萬物之靈 (周書 泰誓上)

天矜于民 民之所欲 天必從之 (同 上)

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 (同書 泰誓中)

皇天之於人君 若父母之於子也 父母怒其子 發諸辭色則子雖無過 必倍加齋慄 承顏順旨 必得父母之底豫乃安於心… 以務所以補前過迴天怒可也。(栗谷全書 卷七)

(3) 正義의 天

中國人の 天觀 가운데 가장 뚜렷한 점은 天은 慈愛보다 正義의 존재로 규정한 것이다. 물론 어떤 때는 天이 君主에게 반성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각종 재변으로 예고함으로써 그 寬仁性을 표시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天은 嚴威의 존재이며 公平無私하여 不義를 행하는 君主에게는 용서가 없으며 天의 公義는 거의 기계적으로 반영되므로 군주가 악행을 행하면 자동적으로 그 지위를 잃게 마련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것은 天이 罰한다는 것보다 군주자신이 自絶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天은 냉엄하고 권위적이며 불편불의하여 어떤 특정인만을 비호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신하가 군주에게 당연히 諫告하여야 할 의무로 여겨왔다.

皇天無親 惟德是輔 (周書 蔡仲之命)

今天動威 以彰周公之德 (周書 金勝)

天毒降災 荒殷邦 (商書 微子)

등에서 알 수 있다.

4. 孔子의 天思想

孔子는 平生 「天」에 관한 말은 삼가했음인지 자주 듣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天」은 「天命」또는 「命」으로 사용되는 바 이 말썸이 적었다는 것이 論語 子罕篇 첫 句節에

「子罕言利與命與仁」

이라 하여 孔子께서는 利益에 관한 일, 運命 天命에 관한 일, 仁에 관한 일은 말썸을 삼갔다고 한다. 아마도 「利」는 人間의 本心 仁情을 저버리고 打算的 기계같은 冷血人生들이 추구하는 것이므로 멀리하여 不言하였을 것이고, 「仁」은 最高의 道德이므로 그 경지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對話할 상대가 못되어 함부로 多辯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罕言하였을 것이고, 「命」또는 「天命」은 運命의 極限點에 관한 言質이 필요할 때 발언할 터인데 그런 경우가 매우 희귀하기 때문일 것이다.

먼저 天命思想을 알아본다.

1) 天命思想

凡人들은 末年 人生歷程을 회고하여 보면 파란 많은 一生 한두 卷의 책으로 다 엮을 수도 없다 하겠지만 大聖 孔子는 아래와 같이 한두 줄로 自述하였다.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爲政)

나는 열다섯에 學問에 뜻을 두었고 서른에 社會 立身을 하였고, 마흔에 미혹되지 않고, 50세에 天命을 깨달았고, 60세에 깨달은 天命에 순종하였고, 70세에는 하고자 하는바 대로 해도 법도에 벗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여기 「天命」은 天賦的 自覺 또는 使命感 등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으나 人生 모두 目的意識으로서의 使命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使命感은 百人百想 萬人萬想이겠으나 孔子의 使命感으로서의 天命은 「내가 이

世上에 태어났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造物主가 있어 人生으로 蒼生하였다면 만든 이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다를 때 「知天命」이라 하겠다.

孔子的 天命的 自覺은 「春秋」를 지은 動機에서 明白히 들어나왔다.

「世衰道微 邪說暴行有作 臣弑其君者有之 子弑其父者有之. 孔子懼 作春秋 春秋天子之事也. 是故孔子曰 知我者其惟春秋乎 罪我者 其惟春秋乎」
(孟子：滕文公 下)

人道가 땅에 떨어졌기에 邪說과 폭행이 난무하고 신하로서 군주를 시해하는 者,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시해하는 자가 속출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이지, 孔子는 크게 개탄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魯史인 春秋를 저작하였다 함은 너무나 유명하며 孔子的 天命的 自覺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孔子는 自身이 堯·舜·禹·湯·文·武·周公으로 이어지는 中國의 傳統文化를 바로잡아 어지러운 現世를 救濟하고 數千秋 미래까지 平和롭도록 人道를 굳게 다지겠다는 것이 孔子的 天命이라 하겠다.

2) 天授道通의 信念

天命이 뚜렷한 孔子에게 어느날 宋에 갔을 때에 제자들에게 禮를 講論하였다. 그때 司馬桓魋가 孔子를 해치려 하였으므로 제자들이 다른 곳으로 속히 피신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孔子는

「子曰 天生德於予 桓魋 其如予何」(論語：述而)

天이 내게 德을 부여하였으니 桓魋가 어찌 天命을 어기고 나를 해칠 수 있으랴?고 하면서 道統天授信念을 피력하였다.

또 이와 비슷한 처지가 있었다.

「子畏於匡 曰文王既歿 文不在茲乎 天之將喪斯文也. 後死者 不得與於斯文也. 天之未喪文也 匡人 其如予何」(子罕)

孔子가 陳으로 가던 도중 宋의 匡邑을 통과하였다. 이보다 앞서 陽虎라는 자가 匡땅 사람들에게 폭행을 한 일이 있었다. 불행히도 孔子의 용모가 陽

虎와 비슷하였으므로 匡人들이 孔子를 陽虎로 오인하고 5일동안 孔子一行을 포위하고 해치려 했던 위기를 당했었다. 그때 제자들은 몹시 두려웠었으나 孔子는 태연한 태도로, 先王의 道의 계승자인 文王이 이미 죽었으니 文(禮樂文物)이 내게 있지 않느냐? 天이 이 文을 없애버리려 하였더라면 나는 이 文에 관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文을 소유하고 있으니 天이 이 文을 없애지 않으려는 증거다. 그렇다면 匡人이 어찌 天意를 어기고 나를 해칠 수 있으랴! 하였다. 그 信念대로 匡人의 오해가 풀려 無事하였다.

3) 良心의 天

孔子가 衛國을 방문하였을 때에 靈公의 부인 南子が 孔子와 면회하기를 청하였으므로 孔子는 그의청에 응하였다. 이대 子路는 不貞하다는 평이 있는 南子를 孔子가 면회한 것을 기뻐할 일이 못된다고 하자

『子見南子 子路不說(悅) 夫子矢之曰 予所否者 天厭之 天厭之。』(雍也)

내가 不正한 짓을 했다면 하늘(天)의 罰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罰을 받을 것이다라고 良心上 결백함을 하늘에 맹서하였다.

孔子가 病이 위독한 일이 있었다. 그때 子路는 孔子의 장례를 성대히 치르기 위해서 준비할 家臣을 門人 중에서 지명하여 두었다. 당시 孔子는 大夫의 職을 사직한 身分임으로 家臣을 둘 수 없었다. 다행이 病이 낫게 되자 子路가 家臣을 정하여 둔 사실을 알고서 경솔하고 무례한 처사에

『子疾病 子路使門人爲臣 病間曰 久矣哉 由之行詐也 無臣而爲有臣 吾誰欺 欺天乎』(子罕)

나는 大夫의 職을 이미 사퇴하였으니 가신이 있을 수 없는데 네가 가신을 두도록 하였으니 이것이 누구를 속인 행위일까? 하늘을 속인단 말일까? 개탄하였다. 얼마나 正直하고 高潔한 탄식인가 알 수 있다.

『孔子曰 君子有三畏 畏天命 畏大人 畏聖人之言. 小人不知命而不畏也 狎大人 侮聖人之言』(季氏)

孔子 말하기를 君子에게는 세가지 두려움이 있으니 天命을 두려워하고, 大人을 두려워하고 聖人の 말을 두려워 한다. 그러나 小人은 天命을 알지 못하므로 두려워 하지 않으며 大人을 알보고 聖人の 말씀을 업신여긴다고 하였다.

모든 사람마다 良心的이고 高潔하다면 털끝만한 不正이 있을까 조심스럽고 두려움이 있지만, 小人輩들은 每事 私慾에 쫓다보면 不正뿐인데 뉘우침도 두려움도 없다. 티끌하나 없는 青天같은 天心, 私心 하나 없는 大人心, 全善心인 聖人心은 人生으로 항상 견주어 반성해야 할 畏警心이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늘을 良心의 保證處로 한다.

4) 攝理의 天

孔子의 제자들 중에는 일일이 言語로 敎示하는 것만 이해하려 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오히려 默想 直觀의 敎수법이 필요하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子曰 予欲無言. 子貢曰 子如不言 則小子 何述焉. 子曰 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天何言哉.」(陽貨)

孔子께서 「나는 말을 아니하고자 한다」 하니 子貢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할 말을 다 하겠습니까?」 하자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무엇을 말씀하시더냐? 말없이 四季節이 運行되고 萬物이 生成되니 언제 하늘이 말씀이 있더냐?」 하였다.

「大哉 堯之爲君也. 巍巍乎 唯天爲大 唯堯則之.」(泰伯)

위대하도다! 堯임금이시여! 높고 높아라! 하늘만이 위대하다고 하나 오직 堯임금만이 견주시도다.

天이 위대한 것은 宇宙의 萬物을 끝없이 無言으로 生成하기 때문이다.

宇宙 大自然은 一毫의 어긋남 없이 大法則대로 運行하면서 無窮無盡한 生成을 永續한다는 것 天만의 偉力이다.

5) 運命의 天

運命이란 人間이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事態가 人力을 초월하여 어찌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바 孔子의 天命思想에도 있다.

그 實例를 들어본다.

가장 아끼던 首弟子 顏淵이 단명하게 죽자

「子曰 噫 天喪予 天喪予」(先進)

슬프다! 하늘이 나를 버리셨도다! 하늘이 나를 버리셨도다!고 통곡하였다고 한다. 生死는 運命임을 어찌 할 수 없다.

「子夏曰 商聞之矣 死生有命 富貴在天」(顏淵)

商이 전날(孔子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정해 있고 富貴는 天意에 있다고 한다.

「子曰 道之將行也 命也. 道之將廢也與命也」(憲問)

孔子말씀에 道가 行하는 것도 天命이고 道가 폐하는 것도 天命이라 하였다. 그래서

「子曰 不知命 無以爲君子也」(堯曰)

孔子 말씀에 天命을 모르면 君子라 할 까닭이 없다고 하였다.

論語 編述上 우연이라고 보아 넘기기에는 의아스럽게 위 「不知命이면 無以爲君子也라」章句로 論語 마지막을 장식했다.

5. 孟子의 天思想

1) 主宰의 天

孟子에게 있어 天의 實在 信念은 確固하고 그 主宰者로서의 天을 알아본다.

「萬章이 물었다.

「堯는 天下를 舜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그와같은 일이 있었습니까?」

孟子 말씀하기를

「아니다. 天子라고 해서 天下를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다.」

「그렇다면 舜께서 天下를 갖게 된 것은 누가 준 것입니까?」

「천이 주신 것이다.」

「天이 주신다는 것은 말로써 天命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아니다. 하늘은 말이 없으시다. 오직 행동과 사실로써 보여 주실 따름이시다.」

「행동과 사실로써 보여준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天子는 사람을 하늘에 천거할 수 있을지언정 하늘로 하여금 天下를 주게 할 수는 없으며, 諸侯는 사람을 天子께 천거할 수는 있을지언정 天子로 하여금 諸侯를 封하게 할 수는 없으며, 大夫가 사람을 諸侯에게 천거할 수는 있을지언정 諸侯로 하여금 大夫의 지위를 주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옛날에 堯가 舜을 하늘께 천거하여 하늘이 받아들이고 百姓들 앞에 내놓았더니 百姓들이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하늘은 말이 없이 행동과 사실로써 보여줄 따름이라고 하는 것이다.」

「감히 묻겠습니다.

하늘께 천거하여 하늘이 받아들이시고 백성들 앞에 내놓아서 백성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로 하여금 제사를 맡아보게 하였더니 모든 神이 받아 드시니, 그것은 하늘이 그를 받아들인 것이며 그로 하여금 나라 일을 맡아 보게 하였더니 나라가 잘 다스려져서 백성이 따르게 되니 이것은 백성이 받아들인 것이다. 하늘이 주시고 사람이 준 것이니 그러므로 天子라고 하여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天下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舜께서 28년동안 堯의 宰相으로 도왔다는 것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뜻(天意)이다.

堯께서 세상을 떠난지 3년상을 끝내고 堯의 아들을 피하여 南河의 남쪽으로 옮겨가자, 天下의 諸侯로서 天子께 朝覲하려는 자는 다 堯의 아들에게로 가지 않고 舜에게로 가며, 訟事를 하려하는 자는 堯의 아들에게로 가지 않고 舜에게로 가며 德을 찬미하는 자는 堯의 아들을 찬미하지 않고 舜을 찬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주신 것이다. 그런 뒤에야 中國으로 들어가서 天子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만일 堯의 궁전에 살면서 堯의 아들을 핍박하였다면 그것은 찬탈이지 하늘이 주신 것이 아니다. 太誓에 「하늘이 보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보는 것을 따르며, 하늘이 듣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듣는 것을 따른다」라고 한 것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萬章이 물었다.

「禹王에 이르러서 德이 쇠하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天子의 지

위를 어진이에게 전하지 않고 아들에게 전하여 주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孟子 말씀하기를,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늘이 어진이에게 주게되면 어진이에게 주고 하늘이 그 아들에게 주게되면 아들에게 주는 것이다. 옛적에 舜께서는 禹를 하늘께 천거하신지 17년만에 세상을 떠나셨다. 3년상을 끝낸 뒤 舜의 아들을 피하여 陽城으로 옮겼다. 天下의 백성들이 그를 따르기를 마치 堯가 세상을 떠난 뒤 堯의 아들을 따르지 않고 舜을 따르던 것과 같 이하였다. 禹는 益을 天께 천거하신 뒤 7년만에 세상을 떠났다. 3년상을 끝내고 益은 禹의 아들을 피하여 箕山의 북쪽으로 옮겼다. 그랬더니 天子께 朝覲하려는 諸侯나 訟事를 하려는 백성들이 益에게로 가지 않고 啓에게로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 임금님이라고 하며 德을 찬미하는 者는 益을 찬미하지 않고 啓를 찬미하며 말하기를 우리 임금의 아드님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堯의 아들 丹朱가 어질지 못하였고 舜의 아들 商均도 또한 어질지 못하였다. 舜이 堯를 보좌한 것과 禹가 舜을 보좌한 것이 해가 오래되어 백성들에게 혜택을 입힌 것이 또한 오래되었다. 啓는 어질어서 능히 禹의 道를 계승할 수가 있었으며 益이 禹를 보좌한 것은 기간이 짧았고 백성들에게 혜택을 입힌 것이 또한 오래지 않았다.

舜과 禹와 益이 그 임금을 보좌한 기간의 짧고 긴 것의 차이라든지 그 아들의 어질고 어질지 못한 것은 다 天意이요 사람의 힘으로써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할려고 하지않았어도 그와 같이 되는 것은 天이요, 부르지 않았어도 자연적으로 닥쳐오는 것은 命이다. 匹夫로서 天下를 가지는 자는 德이 반드시 舜이나 禹와 같으며 또 天子가 천거를 하여야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仲尼께서는 天下를 갖지 못하였다. 代를 이어서 天下를 차지하는데 있어서 하늘의 버림을 받은 것은 반드시 桀이나 紂와 같은 자이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益과 伊尹과 周公이 다같이 天下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이다.」¹⁾

王이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私意에 있지 않고 天意에 있음을 굳게 믿었다.

2) 義理의 天

人間の 本性은 善하다는 것을 詩典 大雅 蒸民篇을 인용하여

1) 「萬章曰 堯以天下與舜 有諸. 孟子曰否. 天子 不能以天下與人……故仲尼不有天下, 繼世以有天下, 天之所廢. 必若桀紂者也. 故益伊尹周公, 不有天下.」(孟子 : 萬章 上)

「詩曰 天生蒸民 有物有則 民地秉彝好是 懿德」(告子 上)

天이 많은 백성을 낳았으니 物이 있으면 법칙이 있다. 백성들은 나면서부터 아름다운 德을 좋아한다.

또 사람은 누구나 다 남에게 악한 일을 참아 행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고, 사람은 仁·義·禮·智의 性을 갖추고 있으니 그 端緒가 惻隱 羞惡 辭讓 是非의 情이요, 이 四端을 확충하면 善人이 된다. 마치 웅덩샘 물이 모여 大河가 되고, 한 가지 성냥불이 온 산불로 번지듯 四端도 확충되어 大善이 되고 확충치 않으면 물줄기가 마르고 불씨가 꺼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²⁾

孟子는 다시 先天的으로 부여받은 本性을 良知 良能으로 설명했다.

「孟子曰 人之所不學而能者 其良能也. 所不慮而知者 其良知也.」(盡心上)

孟子 말씀에 사람이 배우지 않고서 할 수 있는 것을 良能이라 하고 생각하지 않고서 알 수 있는 것을 良知라 한다. 이것을 사람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공유한 마음의 本質이라고 한다.

또 孟子는 사람에게 두가지 귀중한 爵位가 있다고 하는 바 하나는 天爵이요 하나는 人爵이다.

「孟子曰 有天爵者 有人爵者. 仁義忠信樂善不倦此天爵也. 公卿大夫 此人爵也.」(告子 上)

孟子 말씀에 仁義忠信樂善不倦은 天爵이요 公卿大夫같은 官職은 人爵이라고 한다.

孟子에 따르면 天은 自然의 攝理로서의 天이라 보지않고 最高善 最高義理의 實體로 보았다.

人間만이 萬物의 靈長이기 때문에 깨달아서 天意를 파악하게 된다. 微物이나 動物이라면 本心이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나 本心自體가 없어서 모르는 것은 아니다.

2) 孟子 : 公孫丑 上. 原文은 引用된바 있어 省略함

人間이 仁義禮智나 仁義 忠信 樂善 不倦之心이 배우지 않고서도 움트고 알게 되는 것은 人生 個個人들이 出生 前 宇宙心 天心이 그러한 것을 出生 后 個性으로 各自 물려받아 모두 共通 義理之心 善心이 되었다.

孟子가 仁 義 忠 信 樂善 不倦을 天爵이라 한 것은 그 벼슬을 누가 주었는가 반성해 보면 「하늘」인 것이요, 하늘 自體가 義理와 善의 實體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요 天이 없는데 줄 수는 없는 것이다.

孟子의 天思想을 매듭지을 수 있는 語句라면 다음과 같다 하겠다.

「孟子曰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則知天矣.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殫壽不貳 修身以俟之所以立命也.」(盡心 上)

孟子 말씀에 그 마음을 다하는 者는 그 性을 알고, 그 性을 알면 天을 알 수 있다. 그 마음을 保存하고 그 性을 保養하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일찍 죽든지 오래 살든지 자기의 수명에 대하여 개의치 말고 修身에 힘쓰며 天命에 順應하면 運命을 편안히 지킬 수 있다고 한다.

오직 「盡心」에 최선을 다 할 뿐이다.

動物도 植物도 天下 萬物 中の 각자들 또한 宇宙의 原理에 例外가 없으나 그들은 知能이 微弱해서 良知 良能을 발휘하지 못하여 宇宙의 뜻을 읽지 못한다.

人生은 心靈이 英特하므로 자신을 반성하면 털끝만한 잘못이라도 뉘우쳐 바로잡고 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正常이요, 不正하고 邪惡하게 살아가는 者는 例外임을 알아야 한다.

아직 宇宙科學이 初步단계에 있어 알 길이 없으나 地球와 같이 生命體들의 生存條件이 좋은 天體, 더 좋은 天體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살고 있는 地球를 기준해 보아도 宇宙의 生成法則과 生成意志는 감사할 따름이다.

孟子는 이 宇宙의 生成條件에서 大宇宙道德을 파악할 수가 있었다.

어질고(仁) 正義롭고(義) 공경스럽고(禮) 슬기롭고(智) 信實하고(信) 忠誠스런(忠) 心性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호 育成하면 天意를 我意로 크게 살아 감이다.

여기 나의 心性속에서 天을 깨닫게 된다.

6. 荀子の 天思想

1) 無意의 天

荀子の 天은 無意 自然의 天이라 하겠으므로 孔·孟子와는 相反된 견해다. 그의 天論篇을 본다.

『天行有常 不爲堯存 不爲桀亡 應之以治則吉 應之以亂則凶 彊本而節用 則天不能貧 養備而動時則天不能病. 修道而不貳則天不能禍. 故旱不能使之飢渴 寒暑不能使能使之疾. 祆怪不能使之凶. 本荒而用侈, 則天不能使之富. 養略而動罕 則天不能使之全 倍道而妄行 則天不能使之吉. 故水旱未至而飢 寒暑未薄而疾 祆怪未至而凶. 受時與治世同 而殃禍與治世異. 不可以怨天 其道然也. 故明於天人之分 則可謂至人矣.』(荀子: 天論篇)

하늘의 運行에는 일정한 법도가 있다. 堯임금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거나 와 桀王 때문에 없어지지도 않는다. 다스림으로써 호응하면吉하고 어지러움으로써 그에 호응하면凶하다. 농사와 같은 근본적인 일에 힘쓰면서節約하면 하늘은 가난하게 할 수 없고, 養生에 대비하면서 철에 알맞게 움직이면 하늘은 病들게 할 수 없으며, 올바른 道를 닦아 이를 어기지 않으면 하늘은 재난을 당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장마와 가뭄도 그런 사람을 굶주리게 할 수 없으며 추위와 더위도 그런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없으며, 妖怪도 그런 사람을凶하게 할 수 없다.

농사 같은 근본적인 일은 버려두고 쓰는 것만 사치하게 하면 곧 하늘은 그를 富하게 할 수 없으며 養生은 소홀히하고 몸을 나태하게 하면 天도 그들을 保全할 수 없고, 올바른 道를 배반하며 망동하면 天도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장마와 가뭄이 오기도 전에 굶주리고, 추위와 더위가 오기도 전에 병이 나며 요괴가 나타나지도 않는데凶하게 된다.

紂王때와 治世와는 같으나 殃禍는 治世와 다르다. 그러므로 天을 원망하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天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취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天人의 분별을 잘 아는 사람을 至人이라고 한다.

다음 天과 國家의 治亂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전연 관계가 없다.

日月星辰瑞歷은 聖王 禹의 때나 暴君 桀의 때나 같다. 그러나 禹王때는 잘 다스려지고 桀王 때는 어지러워졌다. 이것은 治와 亂이 天과 관계가 전연 없음이다.

그러면 治 亂과 時(時)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그것도 전연 관계가 없다. 곡물은 봄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 겨울에 거두어 저장한다. 이것은 禹王 때나 桀王때나 한결같다. 그러나 禹王 때는 잘 다스려지고 桀王때는 어지러워졌다. 이것은 時와 治 亂에 관계가 없음이다.

그러면 治 亂과 地(地)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도 전연 관계가 없다. 모든 生物이 적당한 땅을 얻으면 잘 성장하고 그렇지 못하면 말라 죽는다. 이것은 禹王 때나 桀王 때나 다 같다. 그러나 禹王 때는 잘 다스려지고 桀王 때는 어지러워졌다는 것은 治하고 亂하는 것과 時는 전연 관계가 없음이다.³⁾

모두 天·時·地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人에 달려있다.

2) 自然의 天

天空에서 별이 떨어지고 山中에서 나무가 소리를 내는 것은 天地의 변동이며 陰陽의 변화로서 一時的 현상으로 간혹 있으나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괴상하게 여기는 것은 무방하나 두려워할 것은 못된다.

그것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人祲이다.

人祲란 무엇인가?

帝王이 정치를 하는데 있어 백성으로 하여금 밭을 갈 때와 김을 맏 때를 잃게 하여 民心을 잃고, 수확이 없어 백성이 굶주려 路上에서 굶어 죽은 시체가 있게 되는 것이 첫째 人祲이다.

政令이 밝지 못하고 갑자기 戰亂을 일으켜서 민중을 동원하여 농사에 종

3) 荀子：天論篇

사하지 못하는 것이 둘째 人祲이다.

禮義를 닦지 않고 内外가 分別이 없고 男女가 음란하고 父子가 서로 不信하며 上下가 相衝하고 도둑이 봉기하는 것이 셋째의 人祲이다.

이와같은 人祲는 국가를 문란하게 한다.⁴⁾

『天有其時 地有其財 人有其治 夫是之謂能參 而願其所參則惑矣』(天論篇)

그래서 사람은 天時와 地財를 잘 이용하고 人治를 잘 한다면 능히 天地의 化育의 功에 참여할 수 있다 하고, 그러므로 人事를 잘 다하는 것이 化育에 참여하는 所以인 것을 버리고 天時 地財 人治가 저절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無知한 일이니 그것을 「惑」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君子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힘쓰고 天에 있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며 小人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버리고 天에 있는 것을 바란다. 君子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힘쓰고 天에 있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날로 進歩하고 小人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버리고 天에 있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날로 退步한다』(天論 篇)

고 하였다. 「자기에게 있는 것(在己者)」이란 人間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말함이고 「天에 있는 것(在天者)」이란 天의 賞罰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다. 墨子는 일찍이 「天志」를 말하여 사람은 마땅히 天의 意志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지만 荀子는 天志는 알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天」과 「人」의 분리를 역설한 荀子의 견해는 당시에 있어서 실로 대담한 科學的 思想이며 태도였다.

『天을 높이고 사모함으로써 물자를 많이 얻으려는 것보다 물질을 축적하여 그것을 節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풍년이 들 것을 바라는 것보다는 春生夏長의 시기를 잃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天然의 상태에 있는 많은 물질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켜서 天然物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天論 篇)⁵⁾

4) 荀子：天論篇「夫星之隊 木之鳴 是天地之變…三者錯 無安國」原文 省略

5) 荀子：天論 篇「大天而思之 孰與物畜而裁……故錯人而思天 則失萬物之情.」(原文 省略)

사람은 사람의 힘을 믿어야 하고 天의 힘을 의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철저한 人本主義 思想임을 알 수 있다.

7. 墨子の 天思想

墨子は 荀子와 대조적으로 완벽한 崇天思想으로부터 모든 思想의 근거를 다졌다.

그는 天意에 따라 兼愛交利論, 非攻論, 儉約論, 非命論등을 연역하여 百姓의 福利를 무시하는 일체의 行爲는 天意에 위반한다고 역설하였다.

1) 義의 天

墨子が 얼마나 義理의 天을 소중히 믿었던가 알아본다.

『然則何以知天之欲義而惡不義 曰天下有義則生 無義則死 有義則富 無義則貧 有義則治 無義則亂 然則天欲其生而惡其死 欲其治而惡其貧 欲其治而惡其亂 此我所以知天欲義而惡不義也。』(天志篇 上)

그런즉 天이 義를 바라고 不義를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天下에 義가 있으면 生成하고 義가 없으면 멸망하며 義가 있으면 풍요하나 義가 없으면 빈곤에 빠지고 義가 있으면 다스려지나 義가 없으면 혼란에 빠진다. 그런즉 天은 義를 바라고 不意를 싫어함을 우리 모두 實證할 수 있다. 다음 聖王과 暴君의 차이는 義政을 베푸는가 反義政을 베푸는가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順天意者 義政也. 反天意者 力政也. 然義政將奈何哉. 子墨子言曰處大國不攻小國. 處大家 不篡小家. 强者不劫弱 貴者不傲賤 多詐者不欺愚. 此必上利於天 中利於鬼 下利於人 三利無所不利. 故舉天下美名加之 謂之聖王 力政者則與此異. ……此上不利於天 中不利鬼 下不利於人 三不利無所利. 故舉天下惡名加之, 謂之暴王。』(天志篇 上)

爲政者로서 天意를 순종하는 자는 義政이고 天意를 반역하는 자는 力政이다. 그러면 義政은 어떤 것인가?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공벌하지 않고, 큰 집안은 작은 집안을 빼앗지 않

고, 强者는 弱者를 겁탈하지 않고, 貴한 사람은 賤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영리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위로는 天에 利롭고 가운데로는 鬼神에 利롭고 아래로는 사람에게 利롭다. 이와같은 義政을 하는 자는 聖王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고, 力政을 하는 자는 이와 다르다.

위로는 하늘에 利롭지 않고, 가운데로는 鬼神에게 利롭지 않으며, 아래로는 사람에게 下利하여, 天下로부터 惡名을 사서 暴君이라 불리우게 된다.

『觀其行 順天之意 謂之善意行 反天之意 謂之不善意行. 觀其言談 順天之意 謂之善言談. 反天之意 謂之不善言談. 觀其刑政 順天之意 謂之善刑政, 反天之意 謂之不善刑政…是故…順天之意者 義之法也.』(天志篇 中)

사람의 행실을 보아도 天意에 순종하면 善行이라 하고 天意에 반대되면 不善行이라 하며, 언어에 있어서도 天意에 순종하면 착한 말이라 하고 天意에 반대되면 착하지 않은 말이라 하며, 刑政에 있어서도 天意에 순종하면 좋은 刑政이라 하고 天意에 반대되면 不美스런 刑政이라 한다. 그러므로 天意에 순종하는 자는 義의 모범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然則義果自天出也. 今天下之士君子之欲爲義者 則不可不順天之意矣.』
(天志篇 下)

義라는 것은 天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天下의 君子로서 義를 행하려고 하는 자는 天意를 순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戰爭도 天意에 부합하면 誅라 하여 義戰이고, 天意에 反하면 攻이라 하여 不義戰 즉 侵略戰으로 배격하였다.

禹가 南方 오랑캐 三苗를 정벌하고, 湯이 桀을 추방하고, 武王이 紂를 토벌한 것과 같은 것은 義戰이고 誅이므로 꼭 있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周末의 전쟁은 領土 확장과 權力 증대를 위한 不義의 전쟁이므로 이것은 攻이라 규정하여 배격하였다. 이러한 전쟁은 많은 人命과 家畜을 살상하고 國고를 탕진하는 不仁 不義의 처사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서 복숭아를 훔쳤다거나, 남의 축사로 들어가서 닭 돼지 소 말등을 도둑질 하였다면 누구나 다 나쁘다고

할 것이며, 국가는 그런 사람을 처벌할 것이다. 또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았다면 그런 자는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 잘못도 없는 나라를 침략하는 不義를 행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칭찬한다. 이것을 어떻게 義와 不義를 정당하게 구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는가?」⁶⁾ 하여 墨子는 不義의 전쟁을 크게 비판하였다.

2) 愛의 天

墨子의 中心思想인 「兼愛」의 근거는 天에 두고 있다. 無心 無意의 天이 아니라 「사랑의 天」으로 파악하였다.

『順天意者 兼相愛 交相利 必得賞 反天意者 別相惡 交相賊 必得罰.』(天志篇 上)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한다. 그러므로 賞을 반드시 받는다.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해친다. 그러므로 반드시 罰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兼愛라는 것은 남의 나라를 보면 자기 나라를 본 듯 하고, 남의 가정을 보면 자기 가정을 본 듯 하고, 남의 사정을 보면 자기 사정을 본 듯한다. 그렇게 諸侯들은 서로 사랑하면 나라끼리 전쟁이 없고, 家長들이 서로 사랑하면 쟁탈이 없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투쟁이 있을 수 없다.

君臣간에 서로 사랑하면 은혜를 베풀고 충성을 하며, 父子간에 서로 사랑하면 慈愛와 효도가 있고, 兄弟간에 사랑이 있으면 화목이 있고, 天下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면 강한 자가 弱한 자를 억누르지 않고, 群衆이 小數를害치지 않고, 富者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貴한 사람이 賤한 사람에게 오만하지 않고, 사기꾼들이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지 않을 것이다.』⁷⁾

墨子의 全思想體系는 天을 頂点으로 義·愛·利의 價値觀이 一絲不亂하게 定立되었다.

天이 무엇인가?의 문제는 宗教적으로 있다 없다가 떠나서 道德哲學의 根

6) 墨子：非攻篇 上 「今有一人 入人園圃…… 此可謂知義與不義之別乎.」

7) 墨子：兼愛篇 中 「然則兼相愛 交相利之法 將奈何哉…… 貴不做賤 詐不欺愚.」

據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墨子에게 있어서 天은 道德哲學的 基礎라 해서 絕對者 天이 不在한다면 그의 思想體系 자체가 와해한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宗教人에게 있어서 信仰의 對象이 有에서 無로 될 때 有宗教人이 無宗教人이 되는 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宗教成立의 第一 條件으로서의 天이라면 建築工事に 있어서 最下層工事に 해당하는 天이 되겠으나, 墨子の 경우에 있어서의 天은 最上 保證處로 내세웠다.

그에 해당하는 예를 든다면 한 事件에 있어서 결백한 張本人이 내세운 證人이 회피한다면 그 張本人의 결백이 취소될 수는 없는 것과 같다.

宗教人の 有神과 無神의 문제와 哲學的 眞理의 保證處로서의 唯一神이나 天은 最基層的 存在와 最上層的 存在의 位階가 다르다. 그렇다 해서 宗教의 神이 最下位 存在라는 것이 아니라 森羅萬象의 第一存在라는 말이다.

墨子에 있어서 天은 宇宙內 唯一 最終 最高 存在로서 다음과 같은 權能이었다고 보는 學者도 있다. 즉 첫째 大形體的 天 둘째 主宰의 天 셋째 運命의 天 넷째 理法的 天이라는 것이다. 墨子の 善政의 근거는 天이고 最上의 主權者로서 天子를 감독하고 以下 微賤한 官吏들이 질서있게 使役하는 것이 義政을 한다고 한다.⁸⁾

이러한 天이 確乎히 있다고 믿고, 자기의 所信이 不動한다는 信念이 正堂堂함을 人間 以上の 絕對者가 있다해도 찬성할 것이라는 天이다.

여기 宗教的 天 같으면서 非宗教的 天을 알아야 한다.

8. 老子的 天思想

老子を 哲學派의 類型으로 본다면 自然主義派 哲學者라 하는데 異議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老子는 人間 本位の 人爲主義的 文化 일체를 찬양하지 않고, 淳朴한 自然으로 돌아갈 것을 선양하였으며, 自然 以上の 存在 이라면 宇宙의 創造者 絕對者 神을 想定하고 形而上學體系를 확대하지 않았다.

8) 高瀬武次郎 著 支那哲學史, 291~292面 參照, 東京 文盛堂書店 刊

그러므로 老子哲學에서 言及된 「天」은 觀念的 天이 아니라 「地」와 相對 存在인 「天」이기에, 우리 모두의 事實界・對象世界의 큰 것 中の 하나로서 의 天일 뿐이다. 그러므로 人類 모두가 보고 느끼는 天 以上の 無限大한 想 念世界 「天」이라면 그 理解도 애매하고 無限大하겠지만 具體概念으로서의 「天」은 복잡하지도 않고 哲學的으로 意味化를 확대한다면 오히려 老子와 먼 天을 相象할 뿐이다.

이제 그 實例를 들어 본다.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 無名, 天地之始, 有名萬物之母…」(老 子 : 1章)

「道」를 「道」라고 규정하여 부른다면 영원히 불변하는 道가 못 되고, 사람이 命名하여 固定한다면 이미 낡아서 無用概念이 된다.

天和 地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름이 없었으나, 萬物이 탄생되면서 각자 구별하려는 부호로서의 이름이 있게 되었으니 이름들은 萬物의 어머니라 하 겠다.

「天長地久. 天地所以能長且久者 以其不自生. 故能長生.」(老子 : 7章)

하늘은 길고 땅은 오래이다. 하늘과 땅이 능히 영원할 수 있는 것은 그것 이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有物混成 先天地生.

寂兮寥兮 獨立而不改. 周行而不殆 可以爲天下母. 吾不知其名. 字之曰道 強爲之名曰大, 大曰逝, 逝曰遠 遠曰反.

故道大, 天大 地大 王亦大 域中有四大 而王居其一焉.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25章)

天和 地가 생기기애 앞서 혼합된 物體가 있다. 고요하고 고요하게 외로이 있으면서 변함이 없고, 아니 가는 곳 없이 두루 가면서 위태롭지 않으니 可 히 天下 萬物의 어머니라 할 만하다.

나는 그 이름을 몰라 「道」라 表記할 뿐이고, 억지로 이름을 붙힌다면 「大」라 하겠다.

크기 때문에 아니 가는 곳이 없고, 無限히 가기 때문에 멀고 멀며, 멀리 갔다가는 되돌아온다.

그러므로 道는 크고, 天도 크며, 땅도 크고, 王도 역시 크니, 宇宙內에 네 가지 큰 것이 있는데 王은 그 中의 하나이다.

사람은 땅을 本받고, 땅은 하늘을 本받고, 하늘은 道를 本받고, 道는 自然을 本받는다.

여기 老子書 中에 나오는 「天」은 單字로 나오지 않고 「天地」가 한 熟語로 되어 나옴을 유의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天」을 單字로 論述한다면 「天」을 主語로 관심있게 해명한다고 하겠으나, 한번도 主語的 解明이 없다면 그만큼 關心圈外의 「天」이었다는 사실이다. 언제나 「天」이 「地」와 결합하여 論述되었다면 「地」와 同格名詞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天法道」「道法自然」을 통해서 「天地」가 同格名詞이나 平等名詞만은 아니요 順序로 따지면 「人」보다 「地」가 앞서고 「地」보다 「天」이 앞서고 「天」보다 「道」가 앞서고 「道」보다 「自然」이 最先順位이다.

最先順位 自然이라 해도 人間世界の 價値觀이나 權威意識으로 따져서 위대한 存在者가 아니라 山川草木 微物 衆生 통털어 共生하는 自然의 森羅萬象이다.

이러한 反人爲主義的 自然主義的 價値觀에 따르면 尊嚴한 天이 있을 수가 없다. 雨 風 雪 霜하는 無限廣大한 自然現象으로서의 蒼空인 天에 대하여 價値意味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老子的 自然觀이요 天觀이다.

9. 莊子の 天思想

莊子 또한 自然主義 哲學者이므로 老子와 같은 脈絡의 天觀이다.

天을 主語的으로 풀이한다해도 自然現象으로서의 天일 따름이다.

「天有六極五常 帝王順之則治 逆之則凶」(莊子：天運篇)

天은 上下와 四方으로서의 六極과 金, 木, 水, 火, 土로서의 五行이 있는 바, 帝王은 이에 順應하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에 逆行하면 凶亡하게 된

다고 하였다. 여기 天은 蒼空이나 虛空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구체적인 自然現象이다.

老子에 있어서와 같이 「天地」를 並用할 경우가 많다.

「人生天地之間 若白駒之過郤」(知北遊 篇)

人生이 天地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망아지가 틈사이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

「天地一指 萬物一馬」(齊物 篇)

天地는一指요 萬物은 一馬에 비유할 수 있다.

「天地與我並生 而萬物與我爲一」(齊物 篇)

天地와 나는 共生하고, 萬物과 나는 一體로 살아간다.

등은 天地를 共生場으로 보고 萬物은 大我로 보는 莊子の 齊物哲學이다.

自然과 人生이 同等하다는 宇宙平等思想 속에서 宇宙 곧 天을 至尊하다고 생각할 여지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內直者 與天爲徒」(人問世 篇)

마음을 正直하게 갖게되면 내가 天과 한무리(친구)가 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더 이상 長說할 필요없이 天은 我와 同等하다는 思想이다. 여기에 敬天思想은 멀리 초월하였다.

莊子が 天을 主語的 用法으로 定義를 내린 곳은 많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가 좋은 實例이다.

「曰何謂天 何謂人. 北海若曰 牛馬四足 是謂天 落馬首 穿牛鼻 是謂人. 故曰無以人滅天 無以故滅命 無以得徇名 謹守而勿失 是謂反其眞」(秋水 篇)

무엇을 天 즉 自然이라 하고, 무엇을 人爲라 하는가? 北海若 말하기를 소

말이 네 발을 가지고 있는 것은 天性이고 말의 목에 고삐를 씌우고 소의 코를 푸는 것은 人爲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人爲로 天性을 亡하게 하지 말 것이며, 人智로 타고 난 운명을 거역하지 말 것이요, 所得을 위해서 天命을 희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고 하였으니, 삼가 本分을 지켜 天性을 잃지 않으면 이것이 참 사람(真人)되는 길이라 한다.

天은 形而上學的 偉대한 神聖體가 아니라 自然 곧 天일 뿐이다.

二足動物 四足動物이 각각 二足 四足を 갖고 있는 것 당연한 生態이고, 三足 五足動物이 생긴다면 不具動物이요 불행스런 非正常으로 反天이고, 前者의 正常 生態가 天이라 한다.

莊子の 天觀은 지나치게 意味賦與할수록 本意와 멀어간다. 人間 本位로 想像을 확대하는 대로 天도 커진다면 眞天이 아니라 人爲天으로 反天이 된다.

秋毫도 人爲的 요소가 없이 生來대로의 純朴性을 간직한 상태가 天性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天을 研究하는 글도 老莊哲學의 天論의 경우라면 假飾을 배제하기 위해서 꾸밈없이 純朴한 自然의 原質形態가 天이라고 압축하면 부연을 뺏치 않을 것이다.

II. 修道論

1. 道の 研究

道는 크게 哲學的 道와 倫理 道德學的 道가 있음을 전제하고 兩者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道 一字만으로는 우선 物理世界의 空間과 空間을 연결하는 길 道路를 뜻하고, 다음은 精神世界의 길 人間社會에서 사람과 사람들이 관계를 맺어 相扶相助하며 結束하는 마음의 길이 있고, 다음은 宇宙內에도 物理的 宇宙航路 아닌 原理的 道가 있다고 하는 道論派도 있다.

精神的 道를 人間社會의 人道만을論하는 學派를 儒家라 하며, 人間社會

의 人道를 초월하고 大自然·宇宙의 道를 形而上學的으로 論하는 派는 道家요 哲學的 道論派라 하며 儒家의 道論은 倫理 道德學派라 하겠다.

또한 儒家의 道論은 道學이라 하고 道家의 道論은 道教라 한다. 道學 道教의 學名은 긴 歷史가 있지는 않지만 그 연혁은 다음과 같다.

道學은 宋儒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된 말로서 儒敎만이 道の 正統을 규명하는 學問이라는 뜻에서 道學이라 하였다. 孔·孟子에서 大成된 儒學이 千餘年이 경과하여 宋代에 와서 程子 朱子에 의하여 新儒學으로서의 性理學이 탄생된바, 人性和 宇宙의 原理가 一貫하였음을 밝힌 學問이라는 의미에서 性理學이요, 宇宙의 끝없는 生成運行理法과 人生의 實踐法則도 秩序가 整然하다는 原理學을 줄여서 理學이 道學이다.

道教는 老莊思想과 神仙思想의 기반위에서 陰陽五行說 不老長生說을 결부한 後漢末 張道陵을 開祖로 하는 敎이다.

그러므로 道學과 道教는 概念의 內包가 전혀 다르다.

道を 倫理 道德學的으로 연구하자면 道學的 道論이 되어야 하겠으므로 그 淵源 즉 道統을 추구하면, 堯·舜·禹·湯·文·武·周公·孔子·孟子(朱子說에 의하면 孔子 후 曾子·子思·孟子)로 계승되다가 近世期에 이르러 程子(程明道 程伊川) 朱子로 完結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제 修道 위한 道論은 哲學的 道가 아니라 倫理 道德學的 道學이 되어야 하겠다.

道學的 儒學的 經典에 들어가기에 앞서 「道」는 物理世界의 空間을 왕래하는 道路와 똑같이 人間社會에서 生活하기 위해서 人對人의 교섭과 관계를 맺어 共同體生活을 履行하는 마음의 길이 있다. 南道 사람이 서울 가기 위해서 반드시 北行路를 가듯, 아들과 아버지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해야 할 길과 아버지가 해야 할 길이 있고 기타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 각자 應分の 몫이 있어서 즉 학생은 학생의 길, 스승은 스승의 길, 근로자, 商人, 公務員등의 길이 있으며, 위 사람과 아랫사람의 만남, 평등한 사람간의 교섭 등에 있어서 지켜야 할 義務가 있다. 이것이 社會人의 「道」이다.

百千이 넘는 道路를 運行하는 車들이 일초도 交通法規를 이탈하지 말 것이요 不然이면 交通事故를 일으키듯, 人間들이 社會生活에서 規範 道義를

꼭 지켜야 하고 不然이면 犯法者가 된다.

그래서 中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非道也. 是故君子戒愼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1章)

道는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떠날 수 있다면 道가 아니다. 그러므로 君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삼가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두려워한다고 하였다.

「子曰道之不行也 我知之矣. 知者過之 愚者不及也. 道之不明也 我知之矣. 賢者過之 不肖者不及也.」(中庸 4章)

孔子 말씀하기를 道가 行(實踐)하여지지 않음을 내가 안다. 지혜로운 사람은 道를 지나치고(超過), 어리석은 사람은 道에 미치지 못한다.

道가 밝혀지지 않음을 내가 안다. 어진 사람은 道를 지나치고, 못난 사람은 道에 미치지 못하여 밝지 못하다고 한다.

精神的 道는 볼 수는 없으나 엄연히 있는 것을 깨달음으로 確認하게 된다.

「孟子 말씀에...

사람은 지키고 가야 할 길이 있는바 배불리 먹고, 따듯한 옷을 입으며, 편안하게 살면서 敎育이 없으면 짐승에 가까운 지라, 聖君께서는 이것을 걱정하여 契로 하여금 司徒라는 官職을 맡게 하여 人倫을 敎育하였으니, 父子간에는 사랑이 있고, 君臣간에는 예의가 있고, 夫婦간에는 분별이 있고, 年上·下간에는 차례가 있고, 친구간에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⁹⁾

하였고 中庸에는

「天下에는 다섯가지 통달된 道(공통된 인간관계)가 있고 이것을 行하게 하는 바는 세가지가 있다. 君臣관계 父子관계 夫婦관계 兄弟관계 친구관계의 다섯은 天下의 공통된 관계이다.

知·仁·勇 세가지는 천하에 통달된 德이요 이것을 行하게 하는 바는 하나이다.」(中庸 : 20章)(原文省略)

9) 孟子 : 滕文公 上 「孟子曰 人之有道也…」 原文 省略함

라 한바 五達道 三達德을 行하게 하는 「一」은 「誠」이라고 朱子는 註하였으니 타당하다고 하겠다.

孟子는 精神的 道路를 集約的으로 「義」로 表明하였다.

「仁人心也 義人路也. 舍其路而弗由 放其心而不知求 哀哉. 人有雞犬 放則知求之 有放心而不知求 學問之道 無他. 求其放心而已矣.」(孟子：告子上)

仁은 人心이고 義는 人間들이 가야 할 마음의 길이다. 그 길을 따라 가지 않고 버리며, 本心을 잃고 찾을 줄 모르니 슬픈 일이다. 사람들은 기르던 닭이나 개가 나가면 찾을 줄 알면서 本心을 잃고서 찾을 줄 모르니 學問의 길은 다름 아니라 本心을 찾자는 것이라 하였으니 至當한 말이다.

筆者는 著書와 論文을 통해서 「人類여! 눈으로 볼 수 있는 物理世界의 道路가 있음은 확인하면서, 人間社會에 人間들이 관계 맺어 마음으로 通來하는 精神道路 곧 倫理가 嚴然히 있음을 왜 모르는가?」수없이 외쳐오고 있다.

그러나 「마음의 길」이라고 모두 倫理의 길이 아니다. 惡한 마음, 凶謀 꾸미는 마음의 길은 反倫理의 길이다.

그래서 孟子는 性善論者이기에 모든 사람이 좋하다고 보아 「仁은 人心」이라 하였으나 「옳은 사람」이어야 善人이 될 수 있다. 때와 장소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으며, 남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과 나와 남 공을 위해서 해야 할, 공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것들을 判斷할 수 있는 마음이 바른 마음, 正直한 마음이어서 바르게 갈 길이 보인다.

孟子가 말하는 「義路」 즉 「義道路」論은 우선 끝은 것 보고 끝다 하고, 굽은 것 보고 굽었다고 하는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왜 事實을 事實대로 있다, 없음을 判定하는 사람이 전부가 못 되는가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慾心이 맑은 마음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마치 붉은 또는 푸른 색 안경을 쓰고 事物을 보면 實物 그대로 보지 못하고 붉거나 푸르게 보는 것과 같다.

모든 不正은 慾心이 만든다. 人生이 바른 길(正道)을 못가서 「義」 「路」

가 못되고 誤道에 빠져 混迷社會를 만드는 것 慾心이 主犯이다.

正心도 慾心도 마음의 길 道를 만드나 正道를 만드는가 誤道를 만드는가
두갈래 길에서 正道를 만드는 것은 慾心を 제거하는 修心 修道의 길을 열어
야 한다.

2. 修道의 길

우선 「修道」란 무엇인가, 古典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中庸 一章)

하늘이 命한 것을 性이라 하고, 性を 따르는 것을 道라 하며, 道를 닦는
것을 教라 한다고 하였다.

여기 核心은 天에 있다. 하늘이 人格的 存在로서 萬物을 주재하는 하나의
絶對者인가? 宇宙 全體의 總體 또는 統一體인가?

儒教를 宗教로 보고 天을 唯一神으로 본다면 보편타당한 論理가 전개되기
어렵고 특정 종교 講論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儒教의 天은 開祖 孔子의 뜻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絶對主宰
者도 唯一神도 아닌 「宇宙의 攝理」라 보기로 한다.

宇宙의 攝理는 形而上學的 原理라기 보다 形而下學的 實相에서 把握되는
「宇宙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마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明白히 있
는 것이 사실이요 마음이 肉身을 조종하여서 動作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의
實在를 推理해서 있다고 하거나 觀念的으로 있다고 하지 않으며 엄연하게
있어서 動作으로 實證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生者가 動作하는 것 자체가 有心作用이므로 小小한 一個體나 大體가
공통적으로 生生活動하겠다는 마음은 統一되었다.

그러므로 天心은 生心이라 하겠고 全生命體의 공통된 共生之心이 天이 命
한 「性」이라 하겠다.

性이 善한가 惡한가의문제는 生하려는 生意志가 善한가 惡한가로 돌아간
다.

물론 生의 現場을 競爭場으로 파악하여 生存 위한 투쟁장의 투사로 본다

면 生 자체가 惡戰苦鬪라 할 수도 있으나 그것의 終着地는 自滅이 있을 뿐이다. 길이 길이 無終 生은 平和의 길이 있을 뿐이다.

여기 生의 哲學은 平和의 길과 通해야 한다.

平和를 소망하는 者 善하겠는가 惡하겠는가 할 때 善者일 것이므로 天性은 善이라 하겠다.

그러한 天의 原性を 繼承하는 것을 「道」라 하였다.

人間으로서 私小한 一身의 慾心에 지배되지 않고 生來的인 天心을 따라 간다면 그것이 「道心」을 지키는 것이다.

道心を 지키는 것이 즉 守道하는 것이 修道라 하겠다. 그 修道하기에 노력하는 것이 「教」라 하였다.

敎란 다름아닌 불완전한 人生으로서 原來的 本心에 돌아가 私小心을 억제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人生은 教育的 動物이라 하는 바와 같이 부족한 自身에게 반성을 거듭하여 善身에 돌아 간다는 것은 一身만 살겠다는 小生心이 아니라 全生者가 소망하는 共生 和愛의 길로 감이다.

全生者の 生命을 나 一身의 生命처럼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修道者가 가는 길이다.

修道者의 마음 갇음은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中庸 一章)

기뻐하고 노여워하며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中이라 하고, 마음이 일어나서 的中하게 들어맞으면 和라 한다.

中은 天下의 大本이요 和는 天下의 達道이다.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成」(中庸 一章)

中과 和에 이르면 天地가 제자리에 놓이고 萬物이 육성하게 된다.

宇宙의 攝理로 보아도 天地中에 萬 生命의 永遠한 生成은 平和가 지속될 뿐인바, 中庸에서도 中和가 天地의 正道요 萬物의 生生 法則이라 하였다.

이제 人生이라 해서 이 原則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인만큼 더욱 萬物의 靈長임이 사실이라면 中和 和愛를 精進하기에 힘 쓸 일이다.

그것이 人生으로서 길이 修道하여 감이다.

結 論

敬天思想을 위하여 먼저 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東洋 韓 中國 天의 思想을 살펴보았다. 上古代로 소급할수록 宇宙 造物主로서의 天에 대한 敬畏心으로 공통되었다고 하겠으나 古代로 내려오면서 人間을 신뢰하는 人本思想이 발달하여 絶對者의 지배 偉力에서 벗어나려는 思想도 있게 마련이다.

그 대표적인 思想이 老莊哲學의 自然主義와 荀子の 人本人爲主義라 하겠다. 그러나 天의 偉力を 배격하고 人間만을 신뢰하는 것이 思想史의 추세만은 아니다. 人生은 永遠히 完全者일 수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다면 生을 다 할 때까지 完全에 가깝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天 혹은 絶對者를 志向하는 敬虔한 派가 있는가 하면, 他力を 不信하고 自力만을 신뢰하는 派는 언제나 있게 마련임을 思想史를 통한 天의 연구에서 확인하게 되었다.

이제 天에 대한 敬虔派와 天力を 不信하는 派를 어떻게 대해야 옳은가?

먼저 天 對 人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天은 無限하고 人生은 有限하다.

天은 完全하고 人生은 未完이다.

天은 極大하고 人生은 微小하다.

嚴然한 이 事實 앞에 無限하고 完全하고 極大한 存在者에게 그 뜻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없다고 보아야 하나, 두 갈래 길이 있다.

筆者는 여러 편의 論文을 쓰면서 生者를 연구하는 가운데 「生者 有心」을 生物學的으로 立證하였다. 路傍 無名草 한 포기 微物까지 그들 나름대로 조그만 마음씨가 간직되어 있음을 관찰하여 듣지는 못해도 읽을 수 있어야 生者 間의 뜻이 通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항차 最大 最高 永遠한 完全者인 天을 物理的으로는 宇宙라 한다면 生者

有心의 原則에 따라서 宇宙의 마음은 天心 天意라 하겠다.

내 몸 속에 내 마음이 있는 것처럼 大宇宙 속에 天心이 있다는 것은 觀念哲學에서가 아니라 實證科學의 宇宙科學으로 論證될 것이다.

풀 한 포기 微生物 하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無心하다 주장하겠으나 視覺으로 嗅覺으로 實感하는 사람에게는 그 擴大로 天心을 是認 아니 할 수 없다.

筆者는 夏至日인 오늘 山村 陋家에서 이 글을 쓰는데, 때마침 밤나무가 白雪처럼 꽃이 만발하여 아름답고 앞 庭園에 白숨이 피어서 그 향기는 밤꽃 향기와 和香하니 人間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大宇宙의 그윽한 향기에 감탄할 따름이다.

이것이 大宇宙 天이 實在하는 實例의 하나이다.

微物이 사는 微視世界는 너무 작아 보지 못하고 大宇宙 天인 巨視世界는 너무 커서 다 볼 수 없어 없다하면 이런 사람은 옳게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極小世界 極大世界를 統一한 世界가 「天」이요 極小心과 極大心を 統合한 全心이 天心이다.

天과 天心을 옳게 알아야 敬天할 수 있게 된다.

이제 修道는 天性을 따라 한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하여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中和 和愛하여 끝없는 相生 繁榮의 길로 精進함이다.

【참고문헌】

典經

書經

詩經

論語

孟子

中庸

荀子

墨子

老子

莊子

金能根 著 「儒教의 天思想」 崇實大學校 出版部

高瀬武次郎 著 「支那哲學史」 文盛堂書局